

정부가 당면한 최대의 문제는 인사파문이다. 김대중정부 출범후 지역감정이 더욱 심화되고 각종 선거에서 이런현상이 표출되고 있다. 특정지역 편중인사문제만 거론하면 야당은 저질로 표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게다가 낙하산인사로 무성한 비판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아예 귀를 막고 못들은 체 하고 있다. 도대체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나뉘먹기식 구태 여전

이번에 단행된 낙하산인사를 보자. 공천신청을 철회한 채영석 전의원은 지난달 30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에 임명됐고, 박태영 전산업자원부장관은 새로 출범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이에 앞서 주미대사로 임명된 양승철 전의원과 한국관광공사사장으로 내각 조흥규 전의원, 한국광업진흥공사사장 박문수, 한국언론재단이사장 김용술, 보훈복지공단이사장 조만진,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김동태 전지구당위원장 등 총선을 전후해 정부산하기관에 자리를 만들어 나간 인사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10명을 훨씬 넘는다.

한나라당 통계에 따르면 2월 기준 85개 주요정부산하단체 임원 중 30여개 자리가 여권이나 친여권인사로 충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총선 당시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여론 결심을 했거나 당에서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정부의 핵심인사들은 각종 중동계와 관행, 대통령제국가 미국의 예까지 들며 정부인사의 합리성을 주장하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특정지역의 사람들 뿐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도 나타나고 있는 특정지역 중심이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낙하산인사이다. 여권실세들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도 있고, 상위순번에 들어가려고 온갖 방법이 동원된다는 얘기도 있다. 이런 인사에는 전문성이나 그 기관의 운영 능력 등 국가적인 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총선당시 당방첩에 순응하는 등 당에 협조했거나, 아니면 반발했기에 따라 정해지

는 것 같다. 채영석 고속철도공단 이사장은 한때 군산시장선거에서 공천헌금과 관련하여 검찰의 내사를 받았고,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고속철과 관련된 경력이라야 국회의원 당시 건설교통위원을 했다는 것이다. 고속철과 관련된 전문지식도 없고, 도덕성을 의심받은 인물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고속철도 공사를 잘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태영 전장관도 전문성 등에서 볼 때 자격이 의심스럽고, 또한 건강보험사령가원장에 김대중대통령의 전동서인 노의사가 임명된 것은 더욱 문제인 것이다. 이런 인사는 김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모를 줄 모르는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스런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물론 여권 인사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다고 해도 능력과 전문성을 갖춰 공기업이나 정부산하기



최용기 (청원대 교수·법학)

관을 잘 이끈다면야 비판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잦아들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디 그랬는가. 공자는 '順天者(순천자)는 存하고 逆天者(역천자)는 亡한다.' 고 말씀하셨다. 이 정부는 경허한 자세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입만 열면 개혁을 외쳐왔다. 그러면서도 공공부문의 개혁은 부진하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공기업시장 및 임원자리에 경영전문가 대신 낙하산인사를 해온 정치권력 때문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영터리 인사를 할 바엔 개혁을 외치지 말아야 한다. 민간 부문에 무슨 명분과 도덕성으로 개혁을 요구할 수 있던 말인가.

전문성·능력 우선돼야

건교부에 따르면 고속철도건설공사가 케도에 오른만큼 이제는 고도의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철도의 민영화와 관련해 노조의 반발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시점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중요한 직책을 수행한다면 공공부문개혁은 실패할 것이다. 만에 하나 기관장의 전문성 부실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는가. 정부가 신뢰를 잃게 되면 민심은 떠나게 된다. 민심이 떠나면 천명도 떠나갈 것이다.

에어컨·기름·수돗물 '흥청망청'

에너지 소비증가율 세계 1위

가정과 사무실, 공장, 자동차 등 분야를 막론하고 에너지 낭비가 심각하다. 에너지 소비증가율 세계 1위라는 감투(?)까지 썼을 정도다. 흥청망청 과소비에, 그것도 모자라 에너지까지 과소비를 하고 있으니 과연 이 나라에 남아갈 것이 무엇이 있을지 걱정까지 될 지경이다.

사람 하나 없는 사무실에서 에어컨과 선풍기가 가동되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찌할 수 없다. 빈방에 켜져 있는 형광등을 보는 것도, 전원이 켜져 있는 채로 4~5시간 혼자 놓고 있는 컴퓨터를 보는 것도, 한나절 목적없이 줄줄 흐르는 수돗물을 보는 것도, 대형 네온사인인 밤새도록 거리를 비추고 있는 모습도 우리에게는 그저 일상일 뿐이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불과 2~3초를 못 기다려 달릴 스위치를 마구 눌러대고, 기름 한 방울이라도 더 쓰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경제속도를

출력 뛰어넘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에너지를 '무한대'인 것으로 여긴다. 우리나라 소비하는 석유는 하루에 약 200만 배럴이라고 한다. 서울 장충체육관을 다섯번 채우고도 남을 양이다. 석유소비 세계 6위의 규모다. 우리나라 인구가 세계 26위, 경제규모가 11위를 들락거리고 있는데도, 국민 1인당 에너지 소비량도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과 같은 수준이다. 더욱이 국민 1인당 소득규모에

비하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일본과 프랑스는 90년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97년 국민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90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도입한 원유만 해도 202억달러로 1년새 37.5%나 증가했다. 이를 국민 1인당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4톤이나 되며, 소비를 10%만 줄여도 20억달러 이상이 절약된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 에너지의 97%가 해외에서 수입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에너지 낭비는 곧 달러를 마구 뿌려대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세계 1위다. 불교에서는 남은 법으로 웃웃을 만들고, 남은 웃웃으로는 속웃을 만들고, 남은 속웃으로는 담웃을 만들고, 남은 담웃으로는 갈개를 만들고, 남은 갈개로는 발뚱을 수건을 만들고, 남은 발뚱은 수건을 잘게 찢어 흩어 섞어 벽을 바르거나 앓을 자리를 만드는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경전(자타가)

에서 아난존자는 바로 이같은 불교의 절약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일찍이 절약의 경제원리를 말했다. "어떻게 하면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느냐"고 묻는 한 젊은이에게 부처님은 "모은 재물을 네 무더기로 쪼개 관리하라"고 일렀다. 한 무더기는 먹고사는 데 쓰고, 두 무더기는 생업을 위해 이윤을 얻는 일에 쓰고, 남은 한 무더기는 곤궁할 때를 대비해 저축해 두라는 것이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에 암흑 같은 IMF 타격을 지냈다. 그리고 언제 다시 경제위기를 겪을지 모르는 위험 속에 살고 있다. 그런 국민들이 에너지를 마구 낭비하는 것은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불교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절약정신과 곤궁할 때를 대비하는 부처님의 지혜를 실천해야 할 때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간 내준 가족에... 아버지 살렸다

의상스님을 자극해도 사모했던 선묘라는 한 여인은 돌과 같이 굳은 스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음을 알고는 스님에게 귀의하면서 반드시 시주(施主)가 되어 스님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을 바치겠다고 발원했다. 또 유학을 마치고 신라로 돌아가는 스님을 보고는 자신의 몸이 용이 되어 배가 무사히 신라에 닿아 스님이 법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며 바다에 몸을 던졌다. 용이 된 선묘는 의상이 탄 배를 부축해 무사히 신라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삼국유사>가 전하는 사랑과 믿음의 힘은 소설의 한장면처럼 외따는 다. 그만큼 사람이 위대하다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서일까.

최근 딸과 형제들이 한 가정을 살렸다는 소식이 무더위를 잊게 하기에 충분했다. 만성간염으로 10년을 버텨 온 50대 회사원 김유영씨가 받아 든 인성 여백은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6개월을 넘기 힘들다는 제한된 시간뿐이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딸 혜인(20)양이 자신의 간을 드리겠다고 나섰다. 4명의 김씨 동생들도 나섰다. 병원측도 감동해 딸과 한 동생의 간을 이식하는 국내 최초의 2명 부분이식 수술을 해주었고, 김씨는 예전의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뜨거운 가족애가 아이면 도저히 불가능한 수술이었다.



"그린벨트내 골프장 허용 반대" 이달 1일부터 그린벨트 내 골프장 건설이 허용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증대와 고용확대를 이유로 최소한 300여 곳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환경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환경단체 회원들은 지난 3일 서울 YMCA 앞에서 그린벨트내 골프장 허용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교통사고... 살인까지 보험금 노린 범죄 급증

일반인들이 음식이 담긴 그릇에 고개를 숙이고 음식을 먹는 것과는 달리 스님들은 발우공양을 할 때 발우를 입 가까이 들어올려서 공양을 한다. 음식 쪽으로 입을 낮춤으로써 음식에 탐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다. 음식에 대한 이런 생각은 음식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느냐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무엇을 해서 밥을 먹고살아야 부끄럽지 않을 것인가'라는 명제는 불교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인 것이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손해보험협회의 통계는 '그렇게 해서라도 먹고살아야 하나'라는 의문마저 던져 준다. 어떻게 남을 속여 내 밥그릇을 챙기고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최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런 보험범죄는 98년 2천6백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40%이상 늘어난 3천7백여 건이었다. 97년과 비교해서는 90%나 늘어난 수치다. 유형별로는 교통사고를 악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고의적인 보험사고나 위장·가공사고 등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고의 방화와 살인까지 포함돼 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정당한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는 올바른 삶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이는 비단 보험범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 기준에 맞춰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시민단체-경찰 '민경협력기구' 발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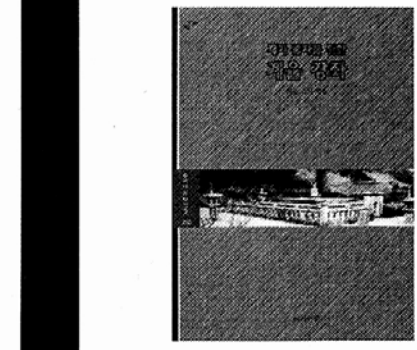
집회나 시위 때마다 서로 대처하던 시민단체와 경찰이 손을 잡았다. 경찰·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한국성폭력상담소·전국운동연합 등 전국 단위의 28개 시민단체대표와 경찰이 지난 4일 경찰청에서 시민단체·경찰 협력위원회 창립총회를 열고 '민경협력기구'를 탄생시켰다. 환경·교통·성폭력 등 날로 심

각해져가는 사회문제를 함께 풀어보자는 취지에서다. '협력위원회'는 성폭력·마약·환경·사이버범죄 예방에 대한 공동연구와 청소년 대상 불법영업 단속, 시위문화 및 교통질서 확립 등을 다룰 3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게 된다고 한다. <장이함경>을 보면 부처님이 대중을 강단에 모이게 하

고 교단의 발전을 위해 말한 것이 있다. 첫째 서로 자주 모여 정의를 강론하고, 둘째 서로가 하나로 협력하여 공경하며, 셋째 법을 받들고 제도를 지키지 말라는 것이다. 각종 사회문제에 시민단체와 경찰이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부처님의 지혜를 펼쳐 보이길 기대한다.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 생활불교 202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돌은 바, 연 지대 어긋남도 없이 친해졌다'는 정신으로 '내려 밟아 밟아 밟아' 일 찍음을 만들었습니다. 주소: 서울로 권선동 110-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계율'의 참된 의미와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고 지키며, 참된 불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일깨워 준다.



일반적으로 계율이라고 하면 '계'보다도 '율'의 의미로 이해하고, 우리의 일상과는 요원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계율에 있어서는 오히려 율보다 계가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계'는 외부에 우리를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자발적인 정신'이다. '율'은 국가의 법률과 같은 것이다. 불교 교단뿐만 아니라 어떤 교단이라도 반드시 규칙이 있기 마련인데, 이 교단 규칙이 바로 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의 입장에서 율을 지키려고 하는 데 '지계'의 진정한 의미가 생겨난다. 불교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계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불자로서의 자각은 '민음'에서부터 일어난다고 해도 좋지만, 불자로서의 행동은 '계'를 근본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 삼귀의계(三歸依戒) - 사물과정경, 염상보경, 일체사경
- 오계(五戒) - 우바새경
- 팔관제계(八關齋戒) - 지재경, 불살우바이타사기경, 불살팔관제경
- 십선계(十善戒) - 십선경, 순타경, 사경, 가림경, 가미니경
- 제가 불자의 윤리 - 자비, 담미까경, 더없는 행복, 파멸, 천한 사람, 대부호, 마니타당, 효자, 사랑스런 이, 교계상갈라경, 육야경
- 대승불교의 계율 - 범망경 보살계, 재가보살계본, 대방광화엄경 정행품, 대방광화엄경 십지품, 불유교경
- 맑고 향기로운 삶을 위한 수행의 지침 - 보살의 서른일곱 가지 수행법, 보살의 보석 염주, '마음의 훈련'을 위한 열여덟 가지 공약, 더불어 살기 위한 열네 가지 계율, 서른여덟 가지 행복의 길, 발심수행장, 대승육정참회

혜능 스님 엮음 B6 변형 330쪽/ 값 6,500원

재가 불자를 위한 계율 강좌